

김정일 유훈 ... 중국, 가깝지만 가장 경계할 국가

(遺訓)

사망 두 달 전 유서 남겨

“김씨 가문에 의한 조국통일이 중국적 목표다.”

“6자회담을 우리의 핵을 인정하고 공식화하는 회의로 만들어야 한다.”

김정일이 지난해 사망 두 달쯤 전 측근들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진 '10·8 유훈'의 일부가 공개됐다. 북한의 평양외국어대학 준박사(한국의 석사) 출신 탈북자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의 이윤걸(44) 소장은 12일 “북한 최고위층과 연관이

김정일의 유훈

대내 분야

- 유언 집행은 김경희(김정은의 고모)가 한다.
- 1년 내에 김정은을 최고 직책에 올려 세운다.
- 김정은을 당에선 김경희·장성택·최용해·김경욱, 군에선 김정일·이영호·김석식·김명국·현철해, 경제는 최영림과 김창룡·서원철·김영호가 책임 보좌한다.
- 김정남(김정일의 장남)을 많이 배려해라. 그 애는 나쁜 애가 아니다. 그의 애로를 덜어줄 것.
- 김설송(김정일 장녀)을 정은의 방조자(협조자)로 밀어줄 것.
- 국내 삼천리리고와 2·16호 자금을 김정은에게 이관. 해외 자금은 김정, 이철호와 합의해 정은에게 이관.

핵, 미사일 등 대외정책

- 선군사상을 끝까지 고수할 것. 국방에 소홀하면 대국의 노예가 된다.
- 핵, 장거리 미사일, 생화학무기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충분히 보유하는 게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
- 미국과의 심리적 대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당당히 올라 미국의 영향력 약화해야.
- 국제 제재 풀어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적 조건을 마련해야. 6자회담을 잘 이용해야.
- 중국은 현재 우리와 가장 가깝지만 앞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
- 김씨 가문에 의한 조국 통일이 중국적 목표.

아니라 우리의 핵을 인정하고 핵보유를 전 세계에 공식화하는 회의로 만들어야 하며 제재를 푸는 회의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한 이중적 관점도 나온다. 김정일은 유서에서 “역사적으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면서 “중국은 현재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국가지만 앞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로 될 수 있는 나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들(중국)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북·중이 혈맹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자국 이익에 따른 외교적 관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심리대결 꼭 이겨야 합법적 핵보유국 올라서야”

대내적으로는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서기에게 절대적 신임을 표시했다. 자신의 유훈의 집행과 김정남을 비롯한 친정 식구들의 거취, 국내외 자금관리책 등을 모두 김경희에게 맡긴 것이다.

장남인 김정남에 대한 배려도 있다. 유서엔 “김정남을 많이 배려해야 한다. 그 애는 나쁜 애가 아니다. 그의 애로를 덜어주도록 할 것”이라고 나온다. 김정남을 숙청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원진 기자 jealivre@joongang.co.kr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부장이 11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4차 대표자회의에서 대표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브리핑

“북 로켓 14일 발사 가능성에 무게”

“12일부터 16일 오전 7시에서 정오 사이에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북한이 첫날인 12일엔 로켓 발사를 하지 않았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측은 전날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고 밝힌 뒤 국제사회는 12일 발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북한의 로켓 연료는 8시간 정도면 주입이 완료되는 데다 12일 날씨가 양호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기상 상태와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14일 오전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13일 최고인민회의의 12기 5차 회의를 소집한 상태이고, 15일은 ‘강성대국 원년’ 진입을 선언하는 김일성 100회 생일 퍼레이드가 예정돼 있다. 대내외 정치쇼의 효과를 높이기엔 14일만큼 좋은 날이 없다는 얘기다.

AP “북 로켓은 미사일 발사체”

북한이 발사를 준비 중인 은하 3호 로켓이 핵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체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AP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취재 중인 AP통신은 현지에서 동행한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은하 3호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핵 탄두 미사일 발사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의 백창호 지휘동체소장은 “발사체는 평화적 목적”이라며 “광명성 3호’ 위성은 기상 예측과 농업용 통계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영상을 보내오도록 고안됐다”고 주장했다.

심장장애 등급 판정 기준 합리화

보건복지부는 심장장애 등 장애등급을 판정할 때 현재 상태를 더 많이 고려하는 내용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장애 판정 기준 가운데 임원병력·횡수 같은 과거 고려사항의 점수를 낮추는 대신 기능검사의 배점을 높였다.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남에 따라 성인과 소아·청소년으로 분리돼 있던 기준도 통합했다.

“유언 집행은 김경희가 한다”

김정은 보좌할 13명 지명

땅은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자료”라며 이 같은 내용의 김정일 유서를 공개했다.

40여 개 항목으로 된 유훈은 대내외 정책으로 나뉜다. 유훈은 “미국과의 심리적 대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당당히 올라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하며 국제제재를 풀어 경제 발전을 위한 대외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6자 회담을 이용할 것도 언급했다. “6자 회담을 우리의 핵을 없애는 회의로

김경희·장성택 ‘넘버2’ 앉혀 친정 강화

(조직담당 비서) (정치국 위원)

김정은, 당대표자회에서 인사

김일성 오른팔 최현의 아들

최용해 정치국 상임위원 임명

11일 북한 당대표자회에서 단행된 당 지도부 인사는 당분간 체제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김정은의 구상을 보여준다. 김정은은 이날 당의 주

요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위원, 후보위원과 정적을 집행하는 당의 비서들에 대한 인사를 했다.

우선 고모인 김경희와 고모부인 장성택을 당 속의 당인 조직지도부를 관장하고 넘버 2 자리인 조직담당 비서와 정치국 위원에 각각 포진시켜 친정체제를 강화했다. 또 이날 권력 핵심부에 진입한 12명 중 9명을 감찰

공안과 조직을 담당하는 군 총정치국장, 행정부장(공안담당), 국가안전보위부 책임자들로 구성했다. 감시와 공안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김일성의 오른팔로 활동했던 최현의 아들 최용해 총정치국장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됐다. 빨치산의 상징인 그를 전면에 배치해 세대교체와 정통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다. 이는 장성택에

대한 견제 의미도 있다. 그는 기존 상무위원이었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이영호 총참모장과 이날 상무위원장에 오른 김정은과 북한의 모든 국정을 논의하고 정하게 된다. 이명수 인민보안부장과 장성택 행정부장 겸 국방위 부위원장, 김원복 국가안전보위부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조직담당) 등 북한의 대표적인 공안기관 책임자들은 정치국 회의에 참가해 발언권을 갖는 정치국 위원이 됐다.

이병삼 인민내무군(국경경비대) 정치국장도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

1부장은 정치국 회의 참가권이 있는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됐다. 당분간 체제 안정화에 주력하는 인적 구성을 갖춘 것이다. 여기에 북한에서 최고의 영웅으로 삼고 있는 빨치산 오중흥의 조카인 오국렬 국방위 부위원장을 후보위원에 배치해 원로에 대한 예우와 정통성에 대한 버팀목 장치를 만들었다. 발등의 불인 경제 재건을 위한 경제담당자들의 경우 광범기 당 중앙위 비서와 노두철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이 고작이다.

정용수·이원진 기자 nkys@joongang.co.kr

www.smb.or.kr

에버랜드보다 더 재미있고... 영화보다 더한 감동이 있는...

상주오디축제 6월 16일(토) ~ 17일(일) 효자 정재수기념관

Recipe 레시피카데미 4월 25일(수), 5월 2일(수) 오후 2시 동교동(홍대역 5분거리) 쿠킹스튜디오

"상주오디 상상" 스티커를 붙이세요

상주오디 예약판매 5월 1일 ~ 5월 20일 상주오디축제 6월 16일(토) ~ 17일(일) 효자 정재수기념관

상주오디 제품설명회

- 4월 24일, 5월 24일 오후 2시 한국경제신문 빌딩 18층 다산홀
- 4월 24일 행사 내용
- 강의 "농업이 성장산업이다"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정규재 이사
- 상주오디 제품 소개, 시음 및 바이어 상담

상주오디·뽕클러스터사업단

참가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smb.or.kr)를 참고하세요.

입찰 공고

관악중앙새마을금고 부동산 매각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922-7,8,38호 토지 및 건물

2. 입찰일시 : 2012. 04. 24(화) 오후 2시

3. 입찰장소 :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895-18 관악중앙새마을금고 7층 회의실

4. 입찰참가자격 : 개인 또는 법인 양식은 당사 홈페이지(www.gwanakjoongang.co.kr)에서 출력

5. 입찰 참가시 제출서류

- 가) 입찰참가서 : 참가자 인장 및 신분증 지참, 인감증명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본공고양식), 입찰 보증금
- 나) 우편접수 불가함

6. 예정가격 : 이십오억원(₩2,500,000,000)

7. 낙찰자 결정 방법

- 가) 본 공고 계약규정 제54조에 의거 관악중앙새마을금고에서 정한 예정 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 나) 입찰신청 후 낙찰업체 이외에는 별도로 통보를 하지않음.
- 다) 입찰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시 입찰서와 밀봉하여 입찰한다.
- 나) 낙찰자가 낙찰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에는 당해 입찰 보증금은 본공고에 귀속됨이다.
- 다) 낙찰자는 계약시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 : 본 공고 계약사무규정 제 37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입찰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가) 낙찰자 결정방법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본 공고 총무과(02-877-1091)로 문의 바랍니다.

2012. 4. 13.

관악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광고안내

02)754-5566 Fax.754-3366

부동산

빌딩-상가

급 가든광릉수목원 대1491건430㎡ 주차30대 010-9998-5316

대지-임야

경기도 나대지 급매 010-7214-3409

영업

심부름

어려운일 080-357-7979 주비밀보장

금융

부동산담보 대출

아파트, 빌라, 주택, 전곡 땅

후순위 담보 당일대출

02)523-8407~8 (주) 피엔라인 대부 월1~3% 2010서울강남0151 강남대치889-5

임야 급매

전남 회수군 복면 12필지 1,406,776㎡

예정이 12억원

주변 백야산 휴양림 위치

임업용산지, 농림지역

토지소유주 직거래 02-719-7424

책 캠페인의 NEW 인생레슨

인생을 차체의 축제로 이끄는 마음의 로드맵

값 12,800원 | 구입문의 02)2000-5362 | 예스24

① 중앙일보교육법인

내 아이의 사고 능력이 궁금하십니까?

생각논리

논술능력 진단평가

www.thinknlogic.com

상담 문의 1588-9812

우리 아이들의 위대한 미래가 되어 주세요

We Start

02.318.5004 westart.or.kr